

산업분석 Vol. 160

2026년 주요국 자동차 시장 전망

 산업조사실
이호 책임연구원

KATECH Insight

- ◆ 2026년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, 중국, 인도, 브라질 등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
- ◆ 우리나라 완성차 시장은 성장률이 전년比 소폭 감소한 수준에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, 수출·생산은 다소의 하방 압력이 있다고 판단되나 완성차 제조사의 전략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

» 2025년 완성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COVID-19로 인한 급감 및 빠른 회복세를 벗어나 안정화되는 추세

- 상위 10개국(2025.1~11월) 중에서는 중국, 인도, 일본 등의 성장률이 높았고, 국가적 혼란을 겪은 프랑스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특징적
- 글로벌 시장에 대한 성장 기여도의 경우 세계 최대 시장이면서도 빠른 성장을 보인 중국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미국·인도 등도 높은 기여도 기록

* 성장 기여도: (개별국의 판매량 증감분) / (글로벌 판매량 증가분)

■ 주요국 및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(단위: 천대, %) ■

구분	2022	2023	2024	2024.1~11.	2025.1~11.	성장률	성장 기여도
중국	23,230	24,560	26,900	23,913*	24,823*	3.8%	50.4%
미국	14,369	16,130	16,443	14,899	15,183	1.9%	15.7%
인도	4,765	5,093	5,256	4,870	5,070	4.1%	11.1%
일본	4,197	4,774	4,415	4,086	4,224	3.4%	7.6%
독일	2,910	3,140	3,139	2,888	2,888	0.0%	0.0%
브라질	2,104	2,308	2,634	2,377	2,410	1.4%	1.8%
영국	1,900	2,250	2,313	2,145	2,174	1.4%	1.6%
프랑스	1,926	2,208	2,155	1,934	1,831	-5.3%	-5.7%
캐나다	1,575	1,738	1,907	1,767	1,775	0.4%	0.4%
이탈리아	1,464	1,762	1,757	1,636	1,590	-2.8%	-2.5%
전 세계 (57개국)	76,223	83,771	87,496	78,578**	80,383**	2.4%	

주1) 중국의 2024.1~11월, 2025.1~11월 판매량은 공장 출하량(MarkLines)을 바탕으로 추정한 값임

주2) 전 세계 2024.1~11월, 2025.1~11월 판매량은 일부 국가의 상반기, 1~10월 판매량이 포함되어 있음

※ 자료원: (중국 외) MarkLines, (중국) 공안부 교통관리데이터(交管数据)

- 우리나라 내수 판매량은 전년도 예상과 달리 양호한 성장을 보였는데 2024년의 저조한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(2월, 5월) 및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
 - 내수 판매량은 국산보다 수입에서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, '24년 2.8만 대 → '25년 5.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Tesla의 판매량이 큰 영향을 미쳤음
 - * Tesla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고 가정하면 내수 성장률은 2.8%에서 1.0% 수준으로 하락
 - 수출은 관세 이슈 등의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유럽, 중남미 수출 등이 증가하면서 소폭 감소

■ 우리나라 자동차 내수, 수출, 생산 (단위: 천대, %) ■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4.1~11.	2025.1~11.	성장률
내수	1,743	1,692	1,759	1,645	1,508	1,550	2.8%
국산	1,429	1,376	1,457	1,352	1,241	1,245	0.4%
수입	313	315	301	293	267	304	14.0%
수출	2,040	2,300	2,766	2,782	2,530	2,491	-1.6%
생산	3,462	3,757	4,243	4,128	3,754	3,739	-0.4%

주) 국산, 수입차 판매량은 각각 국토부 신규 등록현황 통계의 신조차(국산), 수입차(수입) 값을 이용함

※ 자료원: (내수)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, (수출, 생산)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통계월보

■ 주요 지역별 수출 (단위: 천대, %) ■

지역	2024.1.~11.	2025.1.~11.	성장률	지역	2024.1.~11.	2025.1.~11.	성장률
북미	1,543	1,497	-3.0%	대양주	159	151	-4.8%
미국	1,312	1,232	-6.1%	중남미	105	118	12.0%
EU	328	345	5.3%	아프리카	25	32	28.4%
유럽 기타	141	141	0.2%	아시아	32	30	-5.2%
중동	195	173	-11.0%	합계	2,530	2,491	-1.6%

※ 자료원: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

» 주요 분석기관들은 2026년 판매량이 지속 성장하되 성장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

- 주요국 완성차 시장 중에서 중국, 인도, 브라질 등은 양호한 성장을 지속한다는 전망이 많으나, 미국은 관세 비용에 대한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에 따라 역성장한다는 전망이 다수를 형성
 - 한편,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특히 전기차(BEV·PHEV) 판매에 있어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

■ 주요 분석기관의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전망 (단위: 천대, %) ■

	전망 시점	2024	2025		2026	
			판매량	성장률	판매량	성장률
Scotiabank	2025.12월	78,000	80,600	3.3%	81,500	1.1%
GlobalData	2025.Q3	88,795	90,993	2.5%	92,719	1.9%
Bloomberg NEF	2025.6월	80,997	84,247	4.0%	86,866	3.1%
Goldman Sachs	2025.3월		90,000	1.8%	92,000	2.1%

주) Bloomberg NEF는 승용차 기준이며 나머지 기관은 light vehicle 기준. 각 기관별로 대상 국가 상이

» 자체 추정 결과 2026년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전년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

- (개요) 개별 국가의 시뮬레이션 기반 정량 분석*을 실시하여 이를 기본값(base line)으로 설정하고, 이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요소는 정성 전망**으로 별도 제시
 - * (정량 분석) 국가별 분기 GDP, 취업자 수, 소비자물가지수(CPI), 유가, 휴일 수 등 지표의 통계 및 전망치를 활용, Random Forest 알고리즘으로 회귀 분석 실시(국가별로 각각 500회 실시 후 중앙값을 전망치로 제시)
 - ** (정성 분석) 수치화의 어려움으로 ‘▲: 기본값 대비 상향 필요, ▼: 기본값 대비 하향 필요’와 같은 형태로 제시
- 글로벌 판매량 성장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, 선진국 시장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시장의 빠른 성장 지속 전망. 특히 중국, 인도, 브라질 등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

(1) 정량 분석

- 선진국 시장 성장 둔화, 신흥국 시장 빠른 성장 지속, 주요국 시장의 성장/역성장 여부 등은 타 분석기관 전망과 대동소이하나 성장률 전망치는 다소 차이가 존재
- 글로벌 판매량 성장률은 정량 분석 결과에서 전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었으나 정성 분석까지 고려하는 경우 2025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

(2) 정성 분석

- 통계 이슈 및 대일 갈등(중국), 정책 변화 및 대중 갈등(일본), 지정학적 불안(브라질) 등으로 정량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, 이에 따라 글로벌 판매량 전망치도 하향 조정 필요
- (중국) 이구환신 정책이 지속될 예정이나 통계적 착시 현상 소멸 가능성*과 함께 대일 갈등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큰 폭의 하향 조정 필요
 - * 실제 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주행거리 0km 중고차 등까지 고려된 통계의 영향으로 정량 분석서 높은 성장률 전망. 그러나 中 정부서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 및 과당 경쟁 방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착시 소멸 가능
- (일본) 행정부는 확장적인 정책을 예고 중이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 등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고, 중국과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부상 중이므로 큰 폭의 하향 조정 필요
- (브라질) 베네수엘라발 지정학 이슈가 남미 전반에 파급되는 등의 불확실성 확대를 고려 하향 조정 필요

■ 주요국 및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전망 (단위: 천대, %) ■

국가	판매량			성장률		
	2024	2025	2026	2025	2026	
					정량 전망	정성 전망
중국	26,900	27,710	29,340	3.0%	5.9%	▼▼
미국	16,443	16,750	16,420	1.9%	-2.0%	-
인도	5,256	5,450	5,570	3.7%	2.2%	-
일본	4,415	4,570	4,760	3.5%	4.2%	▼▼
독일	3,139	3,180	3,170	1.3%	-0.3%	-
브라질	2,634	2,680	2,860	1.7%	6.7%	▼
영국	2,313	2,350	2,350	1.6%	0.0%	-
프랑스	2,155	2,030	2,060	-5.8%	1.5%	-
캐나다	1,907	1,910	1,870	0.2%	-2.1%	-
이탈리아	1,757	1,710	1,730	-2.7%	1.2%	-
전 세계(52개국)	85,899	87,810	90,710	2.2%	3.3%	▼

주) 국토교통부(한국), 공안부(중국), MarkLines(중국 외)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값임

» 우리나라 완성차 판매량은 전년에 이어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나 성장폭은 제한 전망

- (개요) 주요국 대상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량 분석을 실시하여 기본값(base line)을 설정하고, 정성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는 별도로 제시함
 - 내수(국산, 수입)는 주요국 분석과 마찬가지로 Random Forest 알고리즘으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산출
 - 수출은 해당 시장의 활황/불황, 국내 업체의 현지 경쟁력 변화 및 현지화/수출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, 정량 분석에서는 해당 시장의 변화 요인만을 고려*하고 기타 요소는 정성적으로 고려
- * 2025.1~11월 국가별 수출 비중과 해당 국가의 판매량 전망치를 혼합하여 산출
- 생산은 재고 등의 효과 제거를 위해서 국산 판매량 및 수출을 단순 합산하고 전년도와 동일 기준으로 비교
- 내수 판매는 성장하나 성장률은 낮아지고 수출·생산은 202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

(1) 정량 분석

- 경제성장을 회복과 함께 정부의 확장적 정책의 영향으로 내수 판매량은 증가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
- 수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주력 시장인 미국 시장의 역성장이 전망되나,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전반적인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시장 여건은 202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

(2) 정성 분석

- (내수) 전체적인 판매량은 정량 분석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되나 수입차의 강세 가능성*이 있다고 판단됨. 다만, 국내 업체의 대응 전략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예상
- * 2025년 국내 수입차 판매의 성장을 Tesla가 견인한 바 있고 최근 큰 폭의 가격 인하까지 단행. 또한, 중국계 제조사가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판매량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
- (수출) 수출은 주력 시장인 미국, 유럽에서 소폭의 하방 압력이 존재*하는 것으로 판단. 다만, 국내 신규 생산설비가 본격 가동될 예정임을 고려하면 '현지 생산/판매 vs. 국내 생산/수출' 중에서 국내 생산/수출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존재. 다만, 국내 제조사의 전략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
- * (미국) HEV 판매량의 급성장에 따라 국내 업체가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관세 및 현지 생산 설비 가동의 영향 가능성 존재. 상호관세 판결이 예정되어 있으나 결과와 상관없이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 존재
- * (유럽) 중국계 제조사의 침투율이 확대 추이를 보임에 따라 경쟁 심화 가능성 존재
- (생산) 내수에서 수입차의 상대적 강세 가능성, 수출에서 소폭의 하방 압력이 존재하여 생산에서도 소폭의 하방 압력이 있다고 판단

┃ 우리나라 자동차 내수, 수출, 생산 (단위: 천대, %) ┃

구분	판매량				성장률		
	2023	2024	2025	2026	2025	2026	
내수	1,759	1,645	1,691	1,720	2.8%	1.7%	-
국산	1,457	1,352	1,354	1,361	0.1%	0.5%	▼
수입	301	293	335	358	14.3%	6.9%	▲
수출	2,766	2,782	2,736	2,737	-1.7%	0.0%	▼
생산	실측치	4,243	4,128	4,101			
	국산+수출	4,223	4,134	4,090	4,098	-1.1%	0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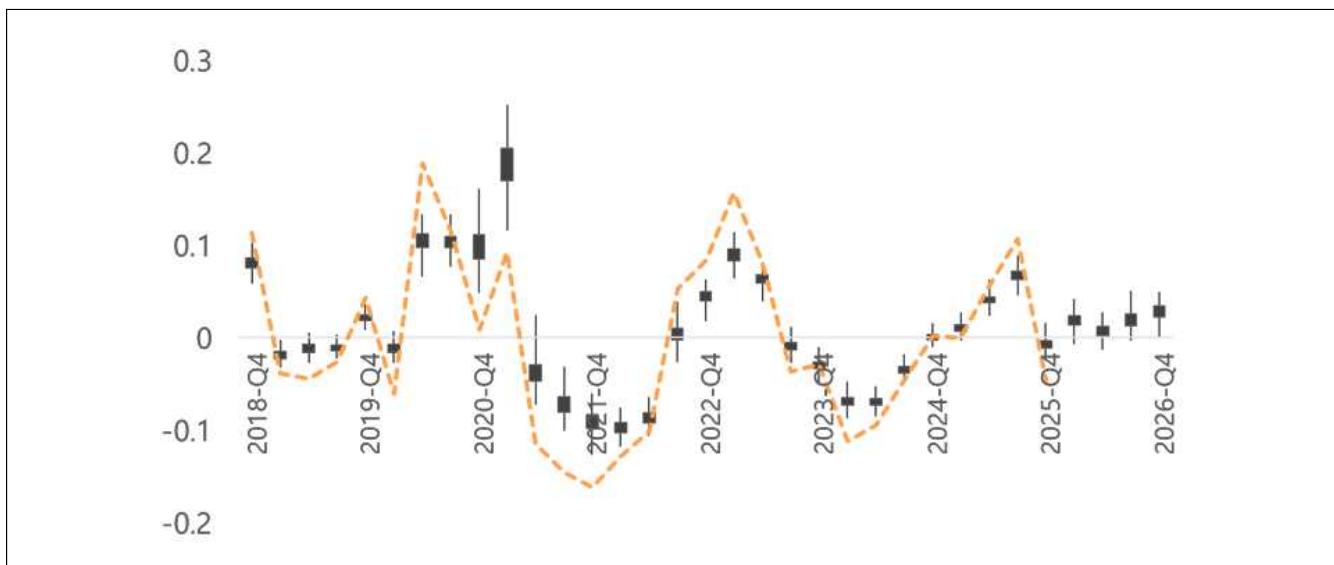
주1) 국토교통부 신규 등록현황 통계의 신조차(국산), 수입차(수입)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값임

주2) 천대 이하는 절사하였기 때문에 합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[참고] 정량 분석 방법론 개요

- 데이터 및 출처 - 공식 통계 및 공신력 높은 주요 분석기관 통계/전망 활용
 - (완성차 판매량 통계) (한국) 국토교통부, (중국) 공안부/MarkLines 조합, (그 외) MarkLines
 - (실질 GDP, 취업자 수, CPI 통계 및 전망치) (중국, 취업자 수) IMF/NBS/CEIC 조합, (그 외) IMF
 - (유가 통계 및 전망) 미국 에너지정보청(EIA)
 - (휴일 수) Python Library
- 방법론 - Random Forest 알고리즘을 이용한 회귀 분석
 - (개요)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는 통상적인 회귀 분석과 달리 무작위적으로 조금씩 다른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결합하는 분석 방식
 - (종속변수) 완성차 판매량 성장률, (설명변수) 실질 GDP 성장률, 취업자 수 증감률, CPI 증감률, 유가 증감률, 휴일 수 증감률. 그리고 이들 변수의 시차 변수(1~3기) 및 완성차 판매량 성장률의 시차 변수(1~3기)
* 모든 변수는 분기 값이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 계산하여 계절성 제거
 - (모델 튜닝) 데이터를 학습/검증용으로 분류,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하며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과적합을 억제하고 적절한 예측 성능을 가진 파라미터를 찾는 튜닝 후 분석 실시

■ 분기별 판매량 성장률 비교 예시(우리나라) – 모델 예측 vs. 실제 (단위: %) ■



주) 캔들 차트는 모델 예측치의 상단, 하단, 3사분위수, 1사분위수를 의미하며, 점선은 실제 성장률 추이를 의미